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1 No. 4, December 2018, pp.24-43.*
Copyright©2018,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능원 정자각의 화반초각에 대하여

전종우
대목
Corresponding Author : jjw2529@gamil.com

국 문 초 록

정자각의 화반은 임란 이후 지난 300여 년간 모두 35곳에 설치되었는데 이는 10년도 안 되는 간격으로 하나씩 만들어진 셈이다. 정자각은 대부분 이익공이라는 동일한 공포형식을 가지며 일정한 장식성이 요구되는 건물로 오랫동안 하나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화반은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도록 배치된 건축요소이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그 초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장답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필자는 여러 종류의 화반초각에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또한 초각을 새기던 장인들이 표현하려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것을 나열하고 분류해 보았다.

그 결과 화반초각은 초각의 줄기가 시작되는 지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외형상으로 보면 하나는 초각의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다. 전자를 '하강형'이라 하고 후자를 '상승형'이라 분류하면서 그것에 대한 유래를 찾으려 시도하였다. 또한 이 '상승형'에는 1740년대를 전후로 연꽃이 유지되는 原形과 연꽃이 생략되는 變形이 장인의 匠籍제도와 관련되어 생겨났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1796년에 완성된 『화성성역의궤』의 화반그림에 표현된 초각이 이후 100여 년간 조금씩 화려해지는 변화는 있었지만 큰 틀이 유지되는 경우도 역시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글은 단지 정자각의 화반이라는 부재로만 한정되었다. 앞으로 초각을 가진 익공을 비롯하여 대공과 안초공 등의 다른 부재들과 함께 종합적인 고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주제어 화반초각, 정자각, 상승형, 하강형, 연꽃

투고일자 2018. 06. 29 ● **심사일자** 2018. 08. 10 ● **게재확정일자** 2018. 11. 14

Ⅰ. 머리말

조선시대의 왕릉과 원소(園所)에 지어진 정자각은 왕실의 제례(祭禮)에 이용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축물이다. 이곳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를 치르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조(工曹)에 소속된 우수한 장인들에 의하여 건축되었다.

이러한 정자각 짓는 일은 비정기적이었지만 조선왕조 6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정자각들은 대부분 임란 이후의 건물들로 대략 300년의 기간 동안 건축된 것들이다.

이 건물들은 당시 관영건축의 격식에 맞게 대부분 익공식 건축으로 지어졌으며 그중에서 이익공 건축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익공 건축으로 지어진 정자각에는 화반을 건물 내부나 주간(柱間)에 설치함으로써 내외적으로 위엄성을 갖는다. 화반은 부재로써 가지는 구조적 기능 외에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초각을 새겨 장식하였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ㅅ자(字)형 화반에도 비록 초각은 아니지만 그림을 그려 이를 대신하였다. 이렇듯 화반초각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 특별한 상징성을 내포한다. 초각은 이것을 담아내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며 세부적인 사항들은 장인들 간에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로서 후대에 전승되었다.

이 글은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정자각의 화반초각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현전하는 정자각의 화반을 관찰하였으며 삼국시대의 유물을 비롯하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화반을 비교하여 이를 분류하였고 원형을 추정하였다. 그 변화 속에서 이 일을 맡아온 장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전통성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데 의의를 갖고자 한다.

Ⅱ. 화반초각의 유래와 구성

1. 화반의 정의와 유래

1) 화반의 정의

화반은 전통건축물의 내외부에서 사용되는 공포부재[1] 중 하나로 입면장식을 겸하는 중요한 부재라고 할 수 있다. 화반이란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시대 쓰여진 산릉의궤에 '花盤'[2]이란 표현으로 처음 나타난다. 이것으로 보아 의궤가 편찬된 조선 중기 당시에는 '花盤'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부재를 표기한 것 중에 '花盤'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것을 만드는 장인들은 '花'는 '꽃'이라는 장식적인 의미로, '盤'은 '받는다'는 기능적인 의미로 인식하여 이러한 용어가 생겨난 것이라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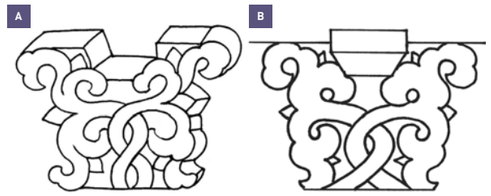


그림 1. A:『화성성역의궤』의 「도설」, B:화성화서문(1795)의 화반.[3]

화반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면

① '창방 위에서 도리를 받는 초각반(草刻盤)'[4] 이라거나

1 김동욱, 김경표, 이왕기, 박명덕, 1990, 「조선시대 건축용어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6권 3호, P6

2 김재웅, 2008, 「조선시대 영건의궤의 목조건축용어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4 그밖에 畵盤이나, 花班, 花斑으로도 등장한다. 花盤이란 용어는 『소현세자묘소도감의궤』(1645년)에 처음 등장한다.

3 A:『화성성역의궤』(https://gallica.bnf.fr/ark:/12148/btv1b10516300j/f162), B:문화재청, 2014, 『수원화서문정밀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p113)를 바탕으로 그림

4 임천, 1955, 『미술고고학용어집』-건축편, 을유문화사, p39

② '간단한 받침으로 주심포, 다포 또는 익공포에도 쓰이며 상하재 사이에 끼어서 상하 가로재를 연결하고 장식하지만 때로는 동자주나 기타의 받침재[5]라고 하였다.

이처럼 화반은 초각으로 장식을 했으며, 창방 위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보 위에서도 사용되는 받침 부재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모양의 부재가 주칸에서 장혀를 받기도 하고 대공이 되어 보를 받는 것은 오래[6]되었다. 성불사 극락전에서 사용된 화반은 이 두 가지 기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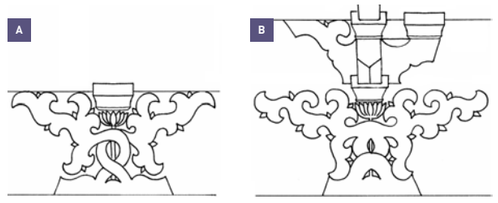


그림 2. A:성불사 극락전의 화반, B:화반대공.[7]

즉 화반은 창방이나 보와 같은 가로재[8] 위에서 구조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장식성을 갖는 부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화반의 유래

우리나라의 화반은 고구려시대의 고분에서 초기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평남 남포시의 용강대묘 벽화에서는 두 경사재를 맞댄 ㅅ자형 부재를 중심으로 좌우에 일자형 부재를 묘사하였다. 일자형 부재보다 만드는 과정이 복잡한 ㅅ자형 부재가 굳이 사용된 것은 위에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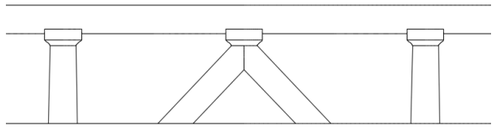


그림 3. 용강대묘(5세기)의 화반.[9]

소슬화반[10]이라고 하는 ㅅ자형 부재는 용강대묘 이외에도 다수의 고구려고분에서 벽화의 소재나 실물로 종종 사용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동시대의 건축물에도 널리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11] 이것은 중국 북조의 석굴[12]과 일본의 법륭사 금당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용어에 모두 '인자(人字)'라는 단어를 포함시켜 중국에서는 인자공(人字栱), 일본에서는 인자형할속(人字形割束)[13]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법륭사 동대문의 화반은 두 개의 직선형 부재가 곡선을 가진 단일 부재로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14]은 실상사의 증각대사탑의 탑신과 철원의 풍천원터에서 발견된 석편(石片)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을 거쳐 ㅅ자형 부재가 있던 자리를 계승한 화반은 조선시대 정자각의 화반에까지 전하여져 오늘에 이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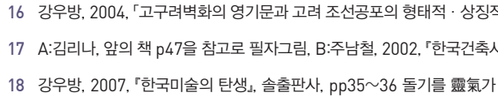


그림 4. 곡선화된 화반[15]
A:법룡사 금당(나라), B:법룡사 동대문(나라), C:증각대사탑(893), D:풍천원터(10세기경).

2. 화반초각의 유래

화반초각은 표면에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부재 자체를 장식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표면에 S자형 무늬를 그려넣은 장식된 소슬화반이 자주 등장한다. 이 S자형과 반S자형으로 이루어진 추상적인 무늬는 단순한 장식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무한성(無限性)과 역동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16]고 한다. 이러한 그림은 화반뿐만 아니라 첨차나 기둥 등 다른 부재에도 즐겨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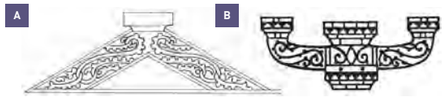


그림 5. 소슬화반과 첨차에서 사용된 추상적인 그림[17]
A:안악2호분(5세기말), B:수산리고분(5세기말).

돌기가 돋은 S자형 곡선[18]은 쿠차의 쿠무투라석굴[19]에서도 볼 수 있는데 당시 이 지역은 일찍이 인도의 불교영향권에 속하였으며 특히 페르시아를 거쳐 로마나 이집트로 연결되는 길목에 있었다. 당대(當代)에 공통된 무늬들이 유행한 것은 국제적인 교류의 결과로써, 실크로드로 연결된 광범위한 지역에 나타나는 하나의 경향[20]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림 6. 돌기를 가진 S字영기문[21]
A:쿠무투라석굴제20굴벽화(5세기), B:삼실총벽화(5세기), C:사천왕사지목탑지기단전돌(7세기)

영원성을 상징하는 추상적인 S자 영기문은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발전하여 건축부재나 공예품에서 응용되었고 고려시대 이후에는 화반의 표면에 새기는 덩굴영기[22]초(草)에 영향을 준[23] 것으로 보인다. 이 초각은 무한대로 팽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의 형태로 압축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7. 덩굴영기문의 압축[24]
A:경주출토 암막새, B:수덕사 대웅전.

5 장기인, 1991, 『목조』, 보성문화사, p215

6 고구려고분인 천왕지신총에서는 ㅅ字形 부재가 각각 대공과 화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7 杉山新三, 1984, 『한국의중세건축』, 상모서방, 그림6을 바탕으로 그림

8 보 상부에서 대공의 일부로 사용되는 것을 따로 화반대공이라고 한다.

9 김리나, 『고구려고분벽화』, 문화재청, p32 그림을 바탕으로 작도

10 

임천의 앞의 책에서(p.30,39) 나오는 '소슬'이라는 용어가 부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일부 견해가 있지만 이와 연관된 용어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사슬'을 예로 들 수 있다. 이것은 마루공사에서 초장널은 좁게 하고 막장으로 갈수록 넓게 하여 마룻널을 끼울 때 좌우에서 사용되는 부재로 경사지게 설치되는 공통점이 있다.(삽화 필자 재구성)

11 주남철, 1989, 「소슬재의 연구」, 『한국학보』 제55집, 일지사, P261

12 돈황막고굴제275굴, 대동운강석굴제9굴, 감숙맥적산석굴제5굴 등

13 주남철의 앞의책, P264

14 이우종, 2006, 「고려시대 공포의 형성과 변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78

15 A:宮元健次, 2001, 『도설일본건축의見方』, 학예출판사 p274, B:太田博太郎,1943, 『법륭사건축』, 대삼사, p152, C:강호제, 2010, 「통일신라시기석조승탑에나타난건축형식에관한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그림4-20, D:杉山新三, 1984, 『한국의중세건축』, 상모서방, p241을 참고하여 작도

16 강우방, 2004, 「고구려벽화의 영기문과 고려 조선공포의 형태적 · 상징적 기원」 『미술자료』 17권71호, pp8-11

17 A:김리나, 앞의 책 p47을 참고로 필자그림, B:주남철, 2002,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출판부, P103

18 강우방, 2007, 『한국미술의 탄생』, 솔출판사, pp35~36 돌기를 靈氣가 발산하는 싹으로 보고 이것으로부터 생명의 탄생과정이 반복되어 생겨난 무늬를 '영기문'이라 하여 모든 영기문에는 영기의 싹(돌기)이 있다고 하였다. 필자 역시 S字곡선이나 덩굴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그 외형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그 문양이 갖는 상징성을 나타내는 S字영기문이나 덩굴영기문이란 표현을 쓰기로 하겠다.

19 쿠차국은 서역 36국의 하나로 기원전 1~2C 경부터 7C 중엽 안서도호부가 설치될 때까지 불교왕권을 유지한 나라로 전진에 불교를 전하였고 고구려는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실크로드 최대규모의 석굴 조성지로 이 중 쿠무투라석굴은 5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 이우종, 2006, 「고려시대 공포의 형성과 변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p56

21 A:중국벽화전집편집위원회,1995, 중국신강벽화전집, p13, B:강우방,한국미술의탄생, p37, C: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3, 『사천왕사 II 회랑내곽발굴조사보고서』, p469

22 강우방, 2012, 「한국 사원건축 공포의 구성원리와 상징구조」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p24에서 연꽃을 감싸고 도는 두 개의 줄기를 '덩굴영기문'이라 하였다.

23 강우방, 2004, 앞의 책, pp22~23에서 고구려 사신총의 인동당초문의 영기문과 수덕사 대웅전의 화반과 비교하여 덩굴에서 연꽃이 화생하는 도상이 기본적으로 같다고 하였다.

24 A:임영주, 1977, 「고분벽화-인동당초문양」 『디자인포장』 32, 한국디자인포장센터, p88의 그림에 색칠, B:강우방 앞의 책, p25 그림 재구성

3. 화반초각의 구성

현존하는 정자각은 모두 임란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화반초각은 대부분[25]은 고려시대 건물인 수덕사 대웅전의 화반과 같은 종류의 초각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덕사 대웅전 화반의 초각형태를 하나의 정형으로 보고 그 구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초각은 제일 밑에 씨방[26]을 놓고 이 씨방에서 올라온 연꽃과 두 줄기의 덩굴영기, 그리고 덩굴 사이로 나온 순[27]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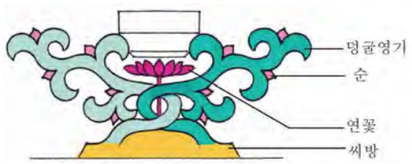


그림 8. 화반의 구성요소.[28]

이것은 앞선 시기부터 유행하던 연꽃을 중심에 두고 좌우에 덩굴영기를 배치하는 문양과 같은 구성을 가진다. 단지 건축부재가 아니므로 소로가 없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화반초각은 최종적으로 소로를 받는 기능적인 역할을 초월하여 연꽃으로부터 탄생하는 소로[29]를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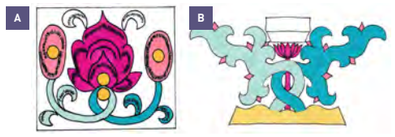


그림 9. 전통문양의 화반 수용[30]
A:왕궁리5층석탑 사리장엄구(통일신라~고려 초), B:성불사 극락전(1374).

수덕사 대웅전과 같은 구성을 갖는 화반들은 임란을 거치면서 조금씩 바뀌는데 예를 들어 해운정 화반의 그림에서는 연꽃과 덩굴영기가 작은 씨방에서 억지로라도 나오려 하는 모습인데 반해 현종숭릉을 비롯하여 정자각 화반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덩굴영기를 씨방으로부터 분리하였다. 또한 숭정전의 화반초각에서는 소로가 연꽃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씨방을 드러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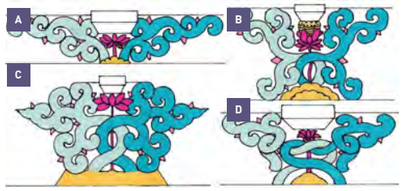


그림 10. 정형성의 유지와 변화의 조짐[31]
A:해운정(1530), C:청평사 회전문(1557), B:숭정전(1620:정각원), 현종숭릉(1674).

이러한 화반구성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승탑[32]의 화반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수덕사 대웅전과 성불사 극락전을 지을 무렵에는 이미 안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정형화를 위한 시도는 그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성은 이후에 지어진 조선시대의 궁궐은 물론 능원의 정자각 화반이나 대공에까지 이어졌다.

25 화반이 있는 정자각 35동 중에서 32동이 이 경우에 속한다.

26 덩굴영기와 연꽃 등 새 생명을 잉태하는 바탕을 의미하며 곧 蓮子房(씨방)이다. 정자각에서는 씨방이 생략된 경우가 더 많다.

27 '순'은 꽃봉우리를 피우기 위한 전단계로 잎이 되기 위한 '싹'과는 다른 것이다.

28 수덕사 대웅전 화반대공(강우방 앞의 책, p25그림 재구성)

29 이러한 것을 불교에서는 蓮花化生이라 하는데 연꽃에서 신비롭게 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처럼 소로를 연꽃으로 받는 것은 수산리고분벽화에서 연꽃(주두) 위에 다시 주두를 올린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30 A:강우방, 2007, 『한국미술의 탄생』, 솔출판사, p136, B: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북한문화재해설 II』, 국립문화재연구소, p38를 바탕으로 그림

31 A:문화재청, 1999, 『강릉해운정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p124를그림, C:춘천시, 2002, 『청평사회전문수리실측보고서』, 춘천시, p218을 바탕으로 그림, B:, D: 촬영후 그림

32  원주 흥법사지 염거화상탑(844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재)에는 화문장식이 화반 자리에 조각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2005, 『국립중앙박물관야외전시문화재이전』, 국립중앙박물관, p147)

Ⅲ. 정자각의 화반초각 분석

1. 정자각의 현황

정자각은 왕 자신과 직계가족의 능 앞에 위치하여 제례에 사용되는 곳으로 정전과 배위청이 정(丁)자처럼 조합된 독특한 형식의 제례건물이다.[33] 고려시대의 왕릉에도 정자각 터가 남아있는 것[34]으로 보아 정자각을 지어온 역사는 천년을 넘었다고 할 수 있다. 능원의 조성으로 인한 정자각의 건축은 비정기적이지만 자주 있는 일이어서 일정한 규모의 전담 기술자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이는 왕조의 교체[35] 후에도 그들에 의해 기본 형태를 유지하려는 전통의 계승이 이루어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정자각은 모두 49동(棟)[36]이 남아 있다. 이 중 근래에 지어진 5곳[37]을 제외하면 조선시대의 장인들이 지은 정자각은 모두 44동(棟)이다. 이 정자각들은 모두 '전통을 이어온 건축장인의 기술'이라는 공통의 분모를 가진 유기체이다.

2. 화반이 있는 정자각의 현황

비교할 수 있는 44동의 정자각 중에서 정전이나 배위청의 공포가 이익공(출목이익공포함)이어서 주칸의 창방 위에 화반을 갖는 곳이 33동이고 초익공이면서 내부의 뜬창방 위에 화반이 설치된 정자각이 2동으로 화반을 가진 정자각은 모두 35동이다.

표 1. 현전하는 정자각의 현황

장소	능호(陵號) (창건 또는 중건년도)[38]
구리(동구릉)	건원릉(健元陵)(1870) 목릉(穆陵)(1608) 숭릉(崇陵)(1674) 현릉(顯陵)(1699) 원릉(元陵)(1776) 경릉(景陵)(1843) 수릉(綏陵)(1855) 휘릉(徽陵)(1897) 혜릉(惠陵)(1993)
남양주	광릉(光陵)(1696) 사릉(思陵)(1698) 홍릉(洪陵)(1901) 유릉(裕陵)(1904) 순강원(順康園)(1755) 휘경원(徽慶園)(1863) 영원(英園)(1970)
서울	정릉(貞陵)(1669) 의릉(懿陵)(1724) 태릉(泰陵)(1994) 강릉(康陵)(1695) 선릉(宣陵)(1706) 정릉(靖陵)(1669) 헌릉(獻陵)(1664) 인릉(仁陵)(1856) 수경원(綏慶園)(1899) 영휘원(永徽園)(1911) 숭인원(崇仁園)(1922)
고양 (서오릉)	경릉(敬陵)(1670) 익릉(翼陵)(1681) 명릉(明陵)(1870) 창릉(昌陵)(1756) 홍릉(弘陵)(1757) 순창원(順昌園)(1670)
고양 (서삼릉)	효릉(孝陵)(1690) 희릉(禧陵)(1691) 예릉(睿陵)(1864) 효창원(孝昌園)(1944)
양주	온릉(溫陵)(1739)
화성	륭릉(隆陵)(1789) 건릉(健陵)(1821)
파주(삼릉)	공릉(恭陵)(1677) 순릉(順陵)(1698) 영릉(永陵)(1996) 소령원(昭寧園)(1753)
파주(장릉)	장릉(長陵)(1731)
김포(장릉)	장릉(章陵)(1870)
영월(장릉)	장릉(莊陵)(1698)
여주(영녕릉)	영릉(英陵)(1639) 녕릉(寧陵)(1703)

(북한 제외)

33 김왕직, 2008, 「조선왕릉8간(間)정자각(丁字閣)고찰」 『한국건축역사학회2008년춘계학술발표대회』, p237

34 김동욱, 2008, 「조선조 산릉정자각 연원 소고」 『한국건축역사학회2008년춘계학술발표대회』, p122~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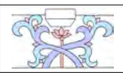
35 공민왕의 현릉(1376년)과 조선 건국후 4년만에 조성된 貞陵까지의 시간간격은 20년 정도다.

36 綏慶園(1899)은 능을 옮기면서 정자각만 남은 경우로 이 건물도 조선시대 만들어진 것이므로 포함시켰다. 또한 丁字평면이 아니더라도 정자각 대신 지어진 것이므로 洪陵과 裕陵의 침전도 포함시켰다.

37 孝昌園(일자각으로 변형, 1944), 英園(1970), 惠陵(1993), 泰陵(1994), 永陵(1996)

38 능원의 정자각 조성 시기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이상명, 2016, 「산릉의궤 정자각을 통해본 조선후기 관영건축의 시공기술」,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31~34, 최정호, 2012, 「조선후기 왕릉 정자각의 지붕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9, 장경희, 2018, 『조선왕릉』, 솔과학, p493,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2015, 『조선왕릉-종합학술조사보고서』 Ⅸ, 국립문화재연구소, pp376~383, 또한 순창원, 수경원, 영휘원, 숭인원, 효창원은 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조선왕실 원묘-종합학술조사보고서』 Ⅰ, Ⅱ를 참조하였다.

표 2. 화반이 있는 정자각의 화반외관

	능호	능주	능 조성시기	정자각 조성시기[39]	공포형식 정전/배위청	화반외관[40]	화반제작[41]추정시기
1	건원릉 (健元陵)	태조	1408	1870	출목이익공/이익공		1870
2	정릉 (貞陵)	태조비, 신덕왕후	1396	1669	이익공/초익공		1669
3	영릉 (英陵)	세종, 소헌왕후	1450	1639	초익공(내부화반)		1639
4	현릉 (顯陵)	문종, 현덕왕후	1452	1699	이익공		1699
5	광릉 (光陵)	세조, 정희왕후	1468	1696	이익공		1696
6	경릉 (敬陵)	덕종, 소혜왕후	1457	1670	이익공		1670
7	창릉 (昌陵)	예종, 안순왕후	1469	1756	이익공		1756
8	공릉 (恭陵)	예종비, 장순왕후	1462	1677	이익공		1677
9	순릉 (順陵)	성종비, 공혜왕후	1474	1698	이익공		1698
10	정릉 (靖陵)	중종	1544	1669	이익공/초익공		1669
11	희릉 (禧陵)	중종비, 장경왕후	1537	1691	이익공		1691
12	효릉 (孝陵)	인종, 인성왕후	1545	1690	이익공		1690
13	강릉 (康陵)	명종, 인순왕후	1567	1695	이익공		1695
14	순창원 (順昌園)	순회세자, 공회빈윤씨	1560	1670	이익공		1670
15	장릉 (章陵)	원종, 인헌왕후	1627	1870	초익공(내부화반)		**1627**
16	장릉 (長陵)	인조, 인렬왕후	1635	1731	출목이익공/이익공		1731
17	휘릉 (徽陵)	인조비, 장렬왕후	1689	1897	출목이익공/이익공		1897

	능호	능주	능 조성시기	정자각 조성시기	공포형식 정전/배위청	화반외관	화반제작 추정시기
18	영릉 (寧陵)	효종, 인선왕후	1659	1703	출목이익공/이익공		1703
19	숭릉 (崇陵)	현종, 명성왕후	1674	1674	출목이익공/이익공		1674
20	명릉 (明陵)	숙종, 인현왕후, 인원왕후	1701	1870	출목이익공/이익공		**1701**
21	익릉 (翼陵)	숙종비, 인경왕후	1681	1681	출목이익공/이익공		1681
22	의릉 (懿陵)	경종, 선의왕후	1724	1724	출목이익공/이익공		1724
23	광릉 (元陵)	영조, 정순왕후	1776	1776	출목이익공/이익공		1776
24	홍릉 (弘陵)	영조비, 정성왕후	1757	1757	출목이익공/이익공		1757
25	륭릉 (隆陵)	장조, 헌경왕후	1762	1789	출목이익공/이익공		1789
26	건릉 (健陵)	정조, 효의왕후	1800	1821	출목이익공/이익공		1821
27	휘경원 (徽慶園	유빈박씨	1822	1863	출목이익공/이익공		1863
28	인릉 (仁陵)	순조, 순원왕후	1834	1856	출목이익공/이익공		1856
29	수릉 (綏陵)	문조, 신정왕후	1830	1855	출목이익공/이익공		1855
30	경릉 (景陵)	헌종, 효현왕후, 효정왕후	1843	1843	출목이익공/이익공		1843
31	예릉 (睿陵)	철종, 철인왕후	1863	1864	출목이익공/이익공		1864
32	수경원 (綏慶園)	영빈 이씨	1899	1899	출목이익공/이익공		1899
33	홍릉 (洪陵)	고종황제, 명성황후	1919	1901	출목이익공		1901
34	유릉 (裕陵)	순종황제, 순명황후, 순정황후	1904	1904	출목이익공		1904
35	영휘원 (永徽園)	순헌 황귀비	1911	1911	출목이익공/이익공		1911

39 정자각의 조성 시기는 창건년도이거나 다시 지은 중건년도이다.

40 화반의 사진들은 모두 필자가 촬영한 것이고 英陵의 화반은 보고서(문화재청, 2008, 영릉정자각지붕보수공사수리보고서, p163)를 참고하여 그린 것이다.

41 굵은 글씨로 나타낸 順昌園, 章陵, 明陵의 숫자(년도)는 같은 시기에 중건된 건원릉의 정자각 화반과 달리 이전 건물의 화반을 남겨 놓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3. 정자각의 목수편수

릉(陵)이나 원(園)을 경영할 때에는 도감(都監)이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하여 공사를 담당하였다. 이 도감에서는 작업의 전반적인 진행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기록하고 정리하여 산릉의궤(山陵儀軌)[42]를 편찬하였다. 이 의궤들 중 일부가 전하여져 현전하는 정자각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산릉의궤에는 해당 공사에서 작업을 진행한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여러 작업소[43] 중에서 조성소(造成所)[44]에 나오는 목수들이 정자각을 비롯한 제실을 담당한 장인들인데 필자는 나열된 이름 중에서 앞에 나오는 2명의 목수를 정자각의 편수와 부편수라고 보고[45] 각 정자각의 목수편수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것으로 당시의 편수들과 화반초각의 상관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목수장인들은 일의 특성상 편수와 부편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편수는 부재가 알맞게 치목되도록 먹을 그리는 작업을 주로 담당한다. 그래야 편수는 더 중요한 다른 일에 매달릴

표 3.[46] 산릉도감 조성소의 목수편수

	의 궤 명	발간시기	능호	피장자	현존 정자각	화반유무	목수편수
1	의인왕후유릉산릉도감의궤	1601	유릉	선조비			강향, 정자봉
2	원종예장도감의궤	1627	장릉	인조부		0	배금, 양남
3	선조목릉천릉도감의궤	1630	목릉	선조	0		배금이, 박기춘
4	인목왕후목릉산릉도감의궤	1632	목릉	선조비			배금, 김질동
5	소현세자묘소도감의궤	1645	소경원	인조자			양남, 송탁
6	인조장릉산릉도감의궤	1649	장릉	인조			김남, 김응상
7	효종영릉산릉도감의궤	1659	영릉	효종			정기종, 김남
8	인선왕후영릉산릉도감의궤	1674	영릉	효종비			김남, 김갑신
9	현종숭릉산릉도감의궤	1675	숭릉	현종	0	0	김남, 김갑신
10	인경왕후익릉산릉도감의궤	1681	익릉	숙종비	0	0	장성길, 김갑신
11	명성왕후숭릉산릉도감의궤	1684	숭릉	현종비			김갑신, 장성길
12	장렬왕후휘릉산릉도감의궤	1688	휘릉	인조비			김갑신, 장성길
13	정순왕후사릉봉릉도감의궤	1699	사릉	단종비	0		장사경, 박해룡
14	단종장릉봉릉도감의궤	1699	장릉	단종	0		신기현, 유영만
15	인현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	1702	명릉	숙종		0	장사경, 신기현
16	단의빈묘소도감의궤	1718	혜릉	단의빈			유영만, 신기현[47]
17	민회빈봉묘도감의궤	1719	영회원	민회빈			유영만, 김진철
18	숙종명릉산릉도감의궤	1721	명릉	숙종			유영만, 김응립
19	경종의릉산릉도감의궤	1725	의릉	경종	0	0	유영만, 양태운

42 의궤명에는 묘호와 능호가 앞에 오며 능을 옮기는 경우는 천릉이나 천봉이라 하였다. 또한 陵이 아니고 원인 경우는 園所, 묘인 경우는 墓所라 한다.

43 산릉도감에는 조성소 외에 삼물소, 대소부석소, 별공작, 번와소 등이 있다.

44 조성소는 정자각과 제실을 비롯하여 그 주변의 건물 짓는 일을 맡은 곳이다.

45 실제로 1688년 이전의 발간된 의궤까지는 나열된 앞의 두 명을 모두 편수라 하여 일반 목수들과 구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정전영건도감의궤』(1805)를 비롯한 영건의궤에서는 都監別單에 도편수–부편–정현편수 등의 순서로 목수를 역할에 따라 나열하였으며, 참여한 모든 목수들의 이름을 한꺼번에 다시 적을 때도 편수들을 앞에 놓아 따로 구별하였다.

46 이 표의 의궤명과 발간시기, 현존 정자각 현황, 장인의 이름 등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이상명, 2016, 「산릉의궤 정자각을 통해본 조선후기 관영건축의 시공기술」,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 장경희, 2013, 『의궤 속 조선의 장인』 1~2, 솔과학

47 『단의빈묘소도감의궤』(1718),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http://yoksa.aks.ac.kr)

	의 궤 명	발간시기	능호	피장자	현존 정자각	화반유무	목수편수
20	효장세자묘소도감의궤	1728	영릉	정종부			유영만(私匠), 김만성[48]
21	선의왕후의릉산릉도감의궤	1731	의릉	경종비			유영만, 박해룡
22	장릉천릉시산릉도감의궤	1732	장릉	인조	0	0	민세익, 이일봉[49]
23	단경왕후온릉봉릉도감의궤	1739	온릉	중종비	0		민세익, 김정구[50]
24	의소세손묘소도감의궤	1752	의령원	장조자			류춘신, 이등거리
25	숙빈상시봉원도감의궤	1753	소령원	숙종빈	0		류춘신, 이등거리
26	인빈상시봉원도감의궤	1755	순강원	선조빈	0		이등거리, 김삼봉[51]
27	정성왕후홍릉산릉도감의궤	1757	홍릉	영조비	0	0	류춘신, 배차남
28	인원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	1757	명릉	숙종비			류춘신, 추후건
29	사도세자묘소도감의궤	1762	영우원	장조			양점봉, 김삼봉
30	태조건원릉정자각중수도감의궤	1764	건원릉	태조			양점봉, 배차남
31	영조원릉산릉도감의궤	1776	원릉	영조	0	0	이귀남, 양점봉
32	문효세자묘소도감의궤	1786	효창원	정조자			유대문, 안국진
33	장헌세자현륭원원소도감의궤	1789	융릉	장조	0	0	한천석, 이육만
34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	1800	건릉	정조			권성문, 양세득
35	정순왕후원릉산릉도감의궤	1805	원릉	영조비			권성문, 장동현
36	헌경왕후현륭원원소도감의궤	1816	융릉	장조비			이인득, 강필선
37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	1821	건릉	정조	0	0	이인득, 김성인
38	수빈휘경원원소도감의궤	1823	휘경원	정조비			이인득, 김중득
39	효명세자연경묘묘소도감의궤	1830	연경묘	익종			이인득, 김중득
40	순조인릉산릉도감의궤	1835	인릉	순조			이인득
41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1843	경릉	헌종비	0	0	원중명
42	익종수릉산릉도감의궤	1846	수릉	문조			염진영
43	헌종경릉산릉도감의궤	1849	경릉	헌종			이만흥[52]
44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	1855	수릉	문조	0	0	이완손
45	휘경원천봉원소도감의궤	1855	휘경원	정조비			이만흥
46	순조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	1856	인릉	순조	0	0	이완손
47	순원왕후인릉산릉도감의궤	1857	인릉	순조비			윤석신
48	현목수빈휘경원천봉원소도감의궤	1863	휘경원	정조비	0	0	이완손
49	철종예릉산릉도감의궤	1864	예릉	철종	0	0	이완손
50	철인왕후예릉산릉도감의궤	1878	예릉	철종비			송계창
51	신정왕후수릉산릉도감의궤	1890	수릉	문조비			김용범
52	명성황후홍릉산릉도감의궤	1898	홍릉	고종비			박계홍
53	효정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1904	경릉	헌종비			박계홍
54	순명황후유강원원소도감의궤	1904	유릉	순종비	0	0	김영규

48 『효장세자묘소도감의궤』(1728),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http://yoksa.aks.ac.kr)

49 『장릉천릉시산릉도감의궤』(1731),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http://yoksa.aks.ac.kr)

50 『온릉봉릉도감의궤』(1739),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http://yoksa.aks.ac.kr)

51 『인빈상시봉원도감의궤』(1755),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snu.ac.kr)

52 『휘경원천봉도감의궤』(1855),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db.snu.ac.kr)

수 있기 때문이다. '먹잡이'라고도 하는 부편수의 역할을 실수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편수는 모든 사항을 부편수와 공유해야 한다. 이러는 가운데 편수는 자신이 선배에게서 배웠던 것까지 자연스럽게 부편수에게 전수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편수와 부편수의 수직적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굵은 글씨로 나타낸 배금이-양남, 김남-김갑신, 류춘신-이등거리는 이러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순조인릉산릉도감의궤』(1835) 이후 조성소에서는 편수의 이름만 확인된다. 그러나 이인득-이완득-원중명-이완손으로 이어지는 편수-부편수 관계는 당시 궁궐을 영건할 때 편찬된 영건의궤[5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반의 초각을 비롯하여 익공이나 대공의 초각들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부편수는 편수에게서 배운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 전하였으며 혹여 변화를 주더라도 그 기본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였다.

4. 정자각 화반초각의 분류

정자각의 화반초각은 덩굴영기가 전개되는 시점(始點)이 어디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초각의 덩굴영기가 소로굽에서 시작되는 경우(이하 하강형)이고 둘째는 씨방이나 창방 위에서 시작되는 경우(이하 상승형)이다. 초각의 전개가 전자는 위에서 내려오는 형상이고 후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이러한 외형의 근본적인 차이를 기준으로 하강형 화반초각과 상승형 화반초각으로 나눌 수 있다.

1) 하강형 화반초각

하강형 화반초각은 덩굴영기가 소로굽 측면에서 나오는

표 4. 정자각의 하강형 화반초각(3/35)

능이름	화반초각[54]	화반추정년	목수편수	관련의궤
인조부장릉		1627년[55]	배금,양남	원종예장 도감의궤
경종의릉		1724년	유영만, 양태운	경종의릉산릉 도감의궤
인조장릉		1731년	민세익, 이일봉	장릉천릉시산릉 도감의궤

경우로 정자각의 화반들 중에서 일반적인 모양은 아니다. 인조부장릉의 화반초각이 가장 앞서는데 이것은 임란 후 복구된 시기와 근접해 있어 그 이전의 모습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예로는 서울 문묘의 탕평비각이나 창덕궁 인정문의 화반이 있다. 특히 이 건물들은 불과 2~3년 사이에 연꽃이 사라지고 있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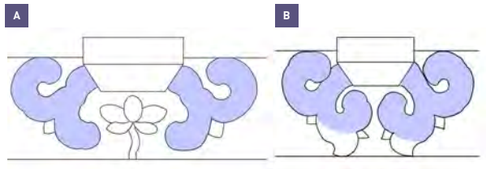


그림 11. A:서울문묘 탕평비각(1742), B:인정문 화반(1745).[56]

정자각 총 35곳 중 3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줄기는 소로굽에서 나오자마자 두 갈래로 갈라진다. 특히 경종의릉(1724)의 정자각에서는 두 갈래의 덩굴이 여러 번 꼬아지고 반대편의 덩굴에까지 걸쳐 비교적 복잡한 형상인데 반해 시기적으로 근접해 있는 인조장릉의 정자각(1731)에서는 이것을 단순화 시켰다.

또한 인조장릉의 화반초각은 연꽃대 끝이 완전히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고 중간에서 멈춰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이기보다는 초각의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53 『창덕궁영건도감의궤』(1834), 『창경궁영건도감의궤』(1834), 『종묘영녕전증수도감의궤』(1836), 『인정전중수도감의궤』(1857)

54 화반초각의 그림은 모두 앞의 사진을 기본으로 그린 것이다.

55 인조부장릉의 정자각은 1870년에 새로 지어졌지만 같은 해에 중건된 건원릉 정자각과 비교하여 화반은 1627년 초창 당시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조부장릉의 화반은 순의 새김에 특징(겹순)이 있는데 이것은 창덕궁의 존덕정(1644)과 영화당(1692)의 초각에서도 확인된다. 이 같은 순은 세종영릉(1639년)부터 숙종명릉(1702년:익공)까지 정자각의 초각에서 볼 수 있는 시대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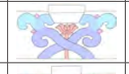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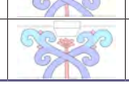
56 A:촬영을 바탕으로 그림, B:문화재청, 2010, 『창덕궁 인정문』, 문화재청, p55

두 건물의 시간차가 7년에 불과하지만 초각의 모양에 많은 변화가 있어 장인 간의 수평적인 교체[57]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상승형 화반초각

(1) 연꽃이 있는 상승형 화반초각

표 5. 교차형(7/35)

능이름	화반초각[54]	화반추정년	목수편수	관련의궤
세종영릉		1639년	불명	의궤가 전하여지지 않음
인종효릉		1690년	불명	의궤가 전하여지지 않음
중종비희릉		1691년	불명	의궤가 전하여지지 않음
명종강릉		1695년	불명	의궤가 전하여지지 않음
세조광릉		1696년	불명	의궤가 전하여지지 않음
성종비순릉		1698년	불명	의궤가 전하여지지 않음
문종현릉		1699년	불명	의궤가 전하여지지 않음

① 교차형[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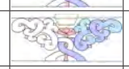
연꽃이 있는 교차형의 화반초각은 씨방이 생략되었고 창방 위에서 나온 덩굴영기가 서로 한번만 교차하여 올라가는 경우이다. 세종영릉(1639년)의 정자각은 초익공집으로 화반의 초각은 정형화된 모습이지만 씨방이 생략되어 창방 위에서 덩굴영기가 올라오는 가장 앞선 모습이다. 인종효릉(1690)부터 문종현릉(1699)의 정자각까지는 모두 10년 이내에 지어진 것으로 1~2명의 편수가 관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화반은 모두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세종영릉의 화반과 달리 덩굴영기가 굵어지고 단순화되었다. 또한 인조효릉(1690)의 초각에만 씨방이 있어 이 무렵이 씨방이 없어지는 과도기로 여겨진다. 이는 직전에 지어진 숙종비익릉(1681) 정자각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 6동의 화반들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창덕궁 영화당의 화반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구성은 같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림 12. 단순화 된 정자각의 화반초각(필자촬영)
A:창덕궁 영화당(1692), B:명종강릉 정자각(1695).

② 이중교차형

표 6. 이중교차형(9/35)

능이름	화반외관	화반추정년	목수편수	관련의궤
태조비정릉		1669년	불명	의궤가 전하여지지 않음
중종정릉		1669년	불명	의궤가 전하여지지 않음
덕종경릉		1670년	불명	의궤가 전하여지지 않음
순회세자 순창원		1670년 전후	불명	의궤가 전하여지지 않음
현종숭릉		1674년	김남, 김갑신	현종숭릉산릉 도감의궤
예종비공릉		1677년	불명	의궤가 전하여지지 않음
숙종비익릉		1681년	장성길, 김갑신	인경왕후익릉산릉 도감의궤
숙종명릉		1701년	불명	의궤가 전하여지지 않음
효종영릉		1703년	불명	의궤가 전하여지지 않음

이중교차형은 연꽃대를 중심으로 덩굴영기가 두 번 교차하여 올라가는 형태이다. 태조비정릉(1669), 중종정릉(1669), 덕종경릉(1670)과 순창원(1670 전후)의 정자각 화반은 모두 같은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역삼각형을 이룬다. 또한 현

57 앞 〈표3〉에서 경종의릉과 인조장릉의 조성소 편수는 유영만과 민세익이다. 두 사람은 경종의릉의 산릉에서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지만 편수와 부편수와의 관계가 아니었다. 따라서 편수로서 민세익의 새로운 등장은 수평적인 교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58 분류명은 단순한 외형적 차이로 덩굴영기가 연꽃대을 가로지르는 모습으로 구분하여 붙인 것이다.

종숭릉(1674)과 예종비공릉(1677), 숙종비익릉(1681), 숙종명릉(1701)의 화반초각은 앞 4동의 화반초각에서 비롯된 변형으로 보인다.

효종영릉의 화반도 앞의 세종영릉의 화반처럼 정형화된 모습이다. 특이할 점은 인조부장릉(1627) 이후 사라졌던 씨방이 현종숭릉(1674)부터 다시 나타나서 1690년 인조효릉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씨방의 의미를 알고 있던 장인의 의도적인 삽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연꽃없는 상승형 화반초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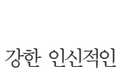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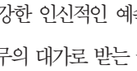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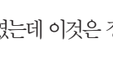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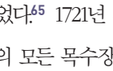
화반초각의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은 연꽃이다. 그런데 이 연꽃은 1756년[59] 예종창릉[60]부터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이것은 화반(花盤)이란 이름이 생겨난 이유와 근거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놀라운 변화이다. 씨방에서 소로로 연결되는 연꽃은 씨방이 생략된 뒤에도 소로를 받고 있어서 아직은 그 상징성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연꽃이 없어진 화반은 그 근거[61]도 같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인조장릉(1731)의 정자각과 예종창릉(1756)의 정자각이 지어지는 사이 장인들의 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암시한다. 씨방이 다시 등장하였다가 사라진 것은 그래도 그 역할을 창방[62]이 대신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연꽃이 사라진 것은 그 의미를 간직했던 장인들과의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과 관련하여 당시(當時)에 장인들의 명부를 관리하던 장적(匠籍)제도[63]의 폐지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기술 분야에 따라 각 관부(官府)에 장적을 등록한 장인들은 관부에의 강한 인신적인 예속관계에 머물러 있었다.[64] 더군다나 관청복무의 대가로 받는 월급이 일반 잡역부에게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는데 이것은 장인들이 국역(國役)을 지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었다.[65] 1721년 간행된 『숙종명릉산릉도감의궤』에서는 조성소의 모든 목수장인들의 소속관서가 처음으로 병기되고 있다. 이 의궤에 따르면 45명의 목수장인 중 정자각이나 제실 건축을 주관하던 선공감(繕工監)에서는 4명만을 보냈으며 공조(工曹) 이외의 다른 부서나 사장(私匠)만으로 나머지 절반을 충당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當時) 선공감에 적(籍)을 둔 장인들 중 상당수가 이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속대전』이 편찬되던 1746년에는 이미 장인(匠人)의 명부를 관리하는 장적(匠籍)제도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기록[66]으로 보아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어느 시점부터는 연꽃새김의 전통을 지키던 장인들이 이전의 고용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① 교차형

교차형은 앞의 연꽃 있는 교차형에서 연꽃이 빠진 형태로 창방에서 올라온 양 줄기의 끝이 소로 밑을 감싸고 있다.

표 7. 교차형(4/35)

능이름	화반외관	화반추정년	목수편수	관련의궤
예종창릉		1756년	류춘신[67]	의궤가 전하여지지 않음
영조비홍릉		1757년	류춘신, 배차남	정성왕후홍릉산릉 도감의궤
영조원릉		1776년	이귀남, 양점봉	영조원릉산릉 도감의궤
장조융릉		1789년	한천석, 이육만	장헌세자현륭원원소 도감의궤

예종창릉(1756)부터 장조융릉(1789)까지 30여 년간 지속하였다. 예종창릉(1756)과 영조비홍릉(1757)의 두 화반의 덩굴영기는 정형화된 모습에서 씨방과 연꽃이 생략된 일반적인 형태이며 영조원릉(1776)의 정자각에서는 덩굴영기가 하나의 줄기로 시작되어 보기 드문 모습이다. 세 종류가 각각의 개성을 가진 초각을 가진다. 여기서도 장인들의 수평적 교체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② 이중교차형

정자각 화반초각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연꽃없는 이중교차형은 대체로 건릉형, 경릉형, 건원릉형[68]의 세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표 8. 이중교차형(12/35)

능이름	화반외관	화반추정년	목수편수	관련의궤
정조건릉		1821년	이인득, 김성인	정조건릉천봉 도감의궤
헌종경릉		1843년	원중명	효현왕후경릉산릉 도감의궤
헌종부수릉		1855년	이완손	익종수릉천봉산릉 도감의궤
순조인릉		1856년	이완손	순조인릉천봉산릉 도감의궤
정조비 휘경원		1863년	이완손	현목수빈휘경원천봉 원소도감의궤
철종예릉		1864년	이완손	철종예릉산릉 도감의궤
태조건원릉		1870년	불명	의궤가 전하여지지 않음
인조비휘릉		1897년	불명	의궤가 전하여지지 않음
장조모 수경원		1899년	불명	의궤가 전하여지지 않음
고종홍릉		1901년	불명	의궤가 전하여지지 않음
순종유릉		1904년	김영규	순명황후유강원원소 도감의궤
고종비 영휘원		1911년	불명	의궤가 전하여지지 않음

『화성성역의궤』가 만들어지던 1796년[69] 당시의 화반 그림과 비교하여 점점 화려하고 복잡해지는 변화를 겪지만 100여 년간 기본 틀을 유지하였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의 형태가 유지된 것은 장인들의 수직적인 교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결과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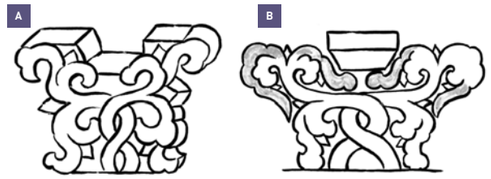


그림 13. A:『화성성역의궤』(1796), B:정조건릉(1821)의 화반(필자그림).

건릉(健陵)형은 상부의 덩굴영기가 양쪽으로 하나씩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초각의 외관은 의궤의 그림과 비슷하다. 이중교차형 중 다른 형태에 비하여 꼬임이 적어 비교적 복잡하지 않다. 정자각에 사용된 것은 정조건릉(1821)뿐이며 그밖에는 휘경원(1822), 수릉(1830), 인릉(1834)[70]의 비각에서 볼 수 있다. 화반초각의 유사성으로만 본다면 정자각의 중건연대와 차이가 있어 이 비각들[71]의 화반은 능원을 처음 조성할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 A:휘경원, B:수릉, C:인릉의 비각화반.

경릉(景陵)형은 초각의 형태가 건릉의 정자각과 비슷하지만 줄기 끝을 뻗어 기존의 초각 위로 걸쳐서 공간을 3차원으로 확장하여 덩굴영기가 밖으로 뻗어 나가려는 힘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 화반초각은 경릉을 비롯하여 수릉, 인릉, 휘경

59 기타 관영건축에서는 서울문묘 탕평비각(1742)이 마지막으로 화반에 연꽃을 새긴 건물로 보인다.

60 예종창릉 정자각의 목수편수는 류춘신으로 1752년의 의소세손묘소인 의령원에서 편수를 시작했다.(〈표3〉에서)

61 연꽃은 앞서 사라진 씨방의 근거이다.

62 여기서 창방은 씨방을 내포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63 京工匠의 각 官署에 소속된 籍을 만들어 工曹에서 소장하던 제도

64 윤용출, 1998,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출판부, p294

65 김동욱의 앞의책 pp164~173

66 김동욱, 1993, 『한국건축공장사연구』, 기문당, p242에서 재인용

67 앞의 〈표3〉에서 류춘신 목수편수는 의령원(1753)~영조비홍릉(1757)의 기간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1756년에 지어진 예종창릉의 정자각은 류춘신이 목수편수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68 초각 형태의 이름은 가장 먼저 지은 정자각의 능호에서 가져왔다.

6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조 사후인 1801년 발간되었지만 의궤는 1796년에 완성되었다. 『화성성역의궤』는 총 10권으로 되어있으며 화반은 卷首(제1권) 圖設편에 그려져 있다.

70 괄호안의 숫자는 능의 조성시기이다.

71 비각이 이익공 형식인 경우는 이 3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4곳(철종예릉, 고종홍릉, 순종유릉, 고종비영휘원)으로 이곳에서는 정자각과 화반초각이 같다.

원, 예릉의 정자각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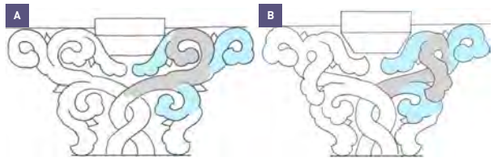


그림 15. A:건릉형(인릉비각), B:경릉형(경릉정자각) 화반.

건원릉(健元陵)형은 순을 숨기는 과정이 돋보이는 형태이다. 덩굴영기가 갈라지면 그 갈라진 틈으로 순이 나오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는 원줄기에서부터 새줄기가 밖으로 꼬여나오면서 순을 표현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연꽃이 없어진 것에 버금가는 과감한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건원릉에서 처음 시작되어 휘릉, 수경원, 홍릉, 유릉, 영휘원에서 이러한 초각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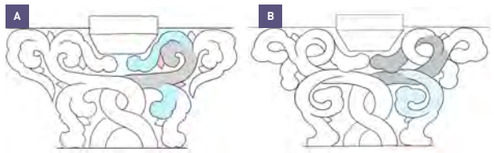


그림 16. A:건릉형(건릉정자각), B:건원릉형(휘릉정자각)의 화반.

정자각에서 연꽃 없는 이중교차형 화반초각은 1822년 이후 90년 정도 지속하다가 왕조의 멸망과 함께 멈추었다. 만일 조선왕조가 지속하였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점점 진화했을 것이다. 이중교차형의 화반초각은 덩굴영기의 형태가 점점 화려해지는 반면 화반초각의 필수 구성요소인 연꽃은 사라지고 순도 역시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 본연의 모습에서 이탈해가는 과정을 겪었다.

5. 정자각 화반초각의 원형고찰

(1) 하강형 화반초각의 원형(原形)

하강형 화반초각은 초각의 전개가 소로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이것은 소슬화반의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곡선화 과정을 겪은 소슬화반은 그 유려한 곡선을 바탕으로 영기덩굴로 변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중국 당대(唐代)[72]의 석굴벽화나 일본의 나라시대를 비롯하여 고려말~조선초의 건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각의 덩굴영기가 소로에서부터 아래로 전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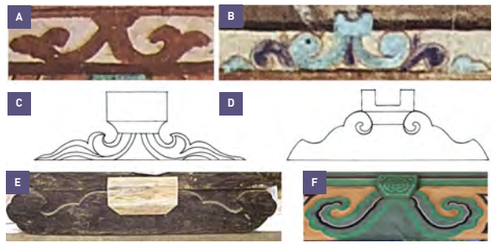


그림 17. 중국, 일본, 한국의 '하강형'초각을 가진 화반.[73]

정자각의 하강형 화반초각에는 연꽃과 씨방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승형 화반초각의 구성요소를 일부 삽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덩굴영기가 소로 아래에서 시작되어 순수한 하강형 화반초각에서 온 변형으로 판단된다.

(2) 상승형 화반초각의 원형(原形)

이 초각을 구성하는 기본 문양은 그림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양은 영생(永生)을 구현(具顯)하고자 하는 신앙적 요소를 지녀 무늬의 전개와 구성이 이러한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74] 상승형 화반초

72 A:의 베제클리크석굴제15굴은 唐代 이후로 보고 있다.

73 A:신강베제클리크석굴제15굴(중국신강벽화예술편집위원회, 2009, 『중국신강벽화예술』, 신강미술촬영출판사, p148), B:돈황막고굴제148굴(중국벽화전집편집위원회, 1989, 『중국벽화전집』, 돈황6성당, 천진인민미술출판사, p191), C:당초제사금당(增山新平, 1935, 『일본사사고건축감식자료』, 예원사, p72), D:법륭사동원남문(太田博太郎, 1943, 『법륭사건축』, 대삼사, p152), E:봉정사대웅전(안동시, 2004, 『봉정사대웅전해체수리공사보고서』, p53), F:숭례문(서울중구, 2006, 『숭례문정밀실측보사보고서』, p42)

74 임영주, 1984, 「한국단청양식의 원류에 대하여」『문화재』17, 국립문화재연구소, p39

각을 구성하는 연꽃과 덩굴영기는 실크로드를 통하여 동점하여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중국의 불교미술에서 애용되었고[75] 곧이어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또한 백제와 신라 역시 이 선진예술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교류를 통하여 받아들였다. 북조의 석굴과 삼국의 벽화나 공예품에서 연꽃과 덩굴영기는 영원성에 대한 상징물로써 씨방이나 연꽃으로부터 고귀한 탄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8. 씨방에서의 탄생[76]
A:강서대묘(6세기), B:무령왕비금제관식(529),
C:돈황막고굴제285굴(6세기중), D:진파리4호분(6세기).

이러한 상승형 화반초각의 밑바탕에 있는 '씨방'에는 모든 탄생의 근원인 '씨앗'이 있다. 이것은 위로는 연꽃을 피우고 좌우로 덩굴을 펼쳐 각 영기 사이에 순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진 화반으로는 수덕사 대웅전을 비롯한 성불사 극락전이 가장 앞선 예이다. 그러나 강릉 객사문에서 보듯이 덩굴영기는 씨방에서 시작되지 않고 연꽃에서 나오는 경우[77]도 있다. 봉정사 극락전[78]의 종대공에서 소로를 받는 부분을 강릉 객사문처럼 연꽃이라 가정하고 갓돌림 된 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두께로 내부 단청을 추정해 보았다. 이러한 모습은 중국 대동의 운강석굴이나 영구의 각산사탑[79]에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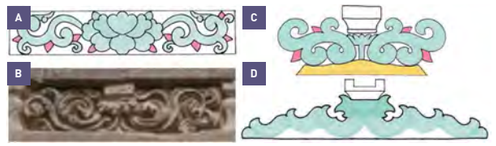


그림 19. 연꽃초각의 구성[80]
A:대동운강석굴12굴(5세기), B:영구각산사탑(1090),
C:강릉 객사문(고려), D:봉정사 극락전(고려).

수덕사 대웅전과 성불사 극락전과 같은 상승형 화반초각은 중국 보전의 원묘관 삼청전 회랑의 화반과 그 구성요소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특히 각산사 영구탑의 난간 장식은 소로를 연꽃으로 받고 있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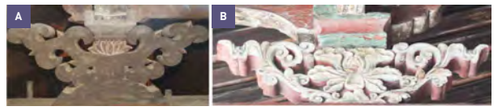


그림 20. 화반초각의 유사성
A:수덕사대웅전(高麗)[81], B:중국 보전원묘관삼청전회랑(明代)(필자촬영).

Ⅳ. 맺음말

화반의 초각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에는 의미 있는 그림에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점차 표면에 연꽃과 줄기(덩굴영기) 등을 새겨 넣어 종

75 전호태, 2000,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출판사, p205

76 A:임영주, 1983, 『한국문양사』, 미진사, p12, B:강우방, 2007, 『한국미술의탄생』, p133, C:중국돈황벽화전집출판위원회, 2006, 『중국돈황벽화전집』, 천진인민미술출판사, p172, D: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06, 『고구려벽화고분보존실태조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p177 이상의 사진을 바탕으로 그림

77 이러한 경우 연꽃은 씨방과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78 등도해치랑, 1976, 『韓의 建築文化』, 예초당, p292– 봉정사극락전의 화반(대공)을 '하강형'으로 보았다.

79 왕대빈, 장국동, 1999, 『산서고탑문화』, 북악문예출판사 –각산사탑(1090년), 산서성 영구현소재

80 A:水野清一외1인, 1953, 『운강석굴』, 경도대학(https://repository.kulib.kyoto-u.ac.jp/dspace/bitstream/2433/139095/2/YunKang_v9_cave12_plate1–42.pdf),3plate의 사진을 바탕으로 그림, B:王大斌외1인, 1999, 『산서고탑문화』, 북악문예출판사, p29, C:문화재청, 2004, 『강릉객사문』, 강릉시청, p254의 도면을 바탕으로 그림, D:문화재청, 2003, 『봉정사극락전』, 문화재청, p422의 도면을 바탕으로 그림

81 문화재청, 2005, 『강릉객사문』, 문화재청, p33

교적 상징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정자각은 대부분 이익공집으로 이러한 화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임란 이후 300여 년간 지속되어 왔다.

화반의 초각은 크게 '하강형'과 '상승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줄기가 뻗어 나오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소로에서 초각이 시작되는 '하강형'은 화반의 원형인 소슬화반의 양 갈래가 곡선으로 바뀌고 끝이 갈라진 다음 덩굴영기로 변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보이며 35곳의 정자각 화반 중에는 모두 3곳이 '하강형'에 해당하였다. 여기에는 모두 연꽃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시기부터는 '하강형'에도 연꽃이 삽입되어 소로 아래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수덕사 대웅전이나 성불사 극락전의 화반을 정형으로 하는 '상승형'은 연꽃과 덩굴영기가 씨방에서 올라오거나 씨방이 생략되고 화반의 밑면에서부터 줄기가 올라오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정자각 화반초각은 '상승형'에 속하는데 이 경우 다시 연꽃이 있는 경우와 연꽃이 생략된 경우로 구별되었다. 연꽃이 있는 화반은 이 유형의 가장 앞선 정자각인 1639년 세종영릉에서 보이기 시작하여 1703년 효종영릉 때까지 지속하였다. 또한 연꽃이 생략된 경우는 1756년 예종창릉의 정자각 화반에서부터 1911년 고종비 영휘원을 조성할 때까지이다.

연꽃은 화반(花盤)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부재의 장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1731년 이후에는 자취를 감추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당시 정자각을 짓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장인들의 커다란 수평적인 교체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은 정자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궁궐전각의 화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종전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개정하여 『속대전』을 만들 때 장적(匠籍)을 관리하는 규정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 원인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화성성역의궤』의 화반그림을 바탕으로 하는 초각이 1822년 정조건릉의 정자각에서 시작되어 왕조의 끝까지 지속하였는데 이 타입의 화반초각은 점점 화려해지고 복잡해졌지만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정자각의 화반은 왕도(王都)와 그 부근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반초각의 유형이 자주 변한 것은 오늘날의 장인들에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자각(丁字閣)이란 명칭은 건물의 평면 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고려시대는 물론이고 조선왕조 육백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다가 홍릉과 유릉에서 방형 평면으로 바뀌고 이름도 침전이라 불리게 되었다. 형태가 바뀌었다고 이름을 바꾸듯이 화반에 연꽃이 없다고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1970년 영원(英園)에서 정자각이 지어질 때 화반에 다시 연꽃이 등장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우방, 2004, 「고구려벽화의 영기문과 고려 조선공포의 형태적 · 상징적 기원」『미술자료』 제17권71호
- 강우방, 2007, 『한국미술의 탄생』, 솔출판사
- 강우방, 2012, 「한국사원건축 공포의 구성원리와 상징구조」『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강호제, 2010, 「통일신라시기석조승탑에나타난건축형식에관한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구선이, 2012, 「산릉도감의궤를 통해 본 17세기 정자각의 원형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2009~2015, 『조선왕릉-학술조사보고서 Ⅰ~Ⅸ』
- 김동욱, 김경표, 이왕기, 박명덕, 1990, 「조선시대 건축용어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6권3호
- 김동욱, 1993, 『한국건축공장사연구』, 기문당
- 김동욱, 2008, 「조선조 산릉 정자각 연원 소고」『한국건축역사학회 2008년 춘계학술발표대회』
- 김왕직, 2008, 「조선왕릉8간(間) 정자각(丁字閣) 고찰」『한국건축역사학회 2008년 춘계학술발표대회』
- 김재웅, 2008, 「조선시대 영건의궤의 목조건축용어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성룡, 2004, 「봉정사극락전과 부석사무량수전의 양식기원 고찰-중국당대, 오대건축과 비교-」『한국건축역사학회 2004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박기선, 1993, 「한국목조건축의 화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리화선, 1989, 『조선건축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삼산신삼, 1984, 『한국의 중세건축』, 상모서방
- 왕대빈, 장국동, 1999, 『산서고탑문화』, 북악문예출판사
- 이상명, 2017, 「조선후기 이익공식 관영건축에서 화반의 의장성 강화」『건축역사연구』 제26권2호
- 이상명, 2016, 「산릉의궤 정자각을 통해본 조선후기 관영건축의 시공기술」,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우종, 2006, 「고려시대 공포의 형성과 변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우종, 2017, 「조선초기 목조건축에 사용된 파련대공과 판대공의 시원과 변천」『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33권5호
- 이현수, 2005, 「한국 팔각당형 승탑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 임영주, 1984, 「한국단청양식의 원류에 대하여」『문화재』 제17호, 문화재관리국
- 임천, 1955, 『미술고고학용어집-건축편』, 을유문화사
- 장경희, 2007, 「조선후기 산릉도감의 장인연구: 왕릉정자각과 석의물의 제작과정을 중심으로」『역사민속학』 제25호
- 장경희, 2013, 『의궤 속 조선의 장인』 1~2, 솔과학
- 장기인, 1991, 『목조』, 보성문화사
- 전호태, 2000,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출판사
- 주남철, 1989, 「소슬재의 연구」『한국학보』 제55집, 일지사
- 최윤화, 2001, 「조선시대능원정자각의 건축특성에 관한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효, 2012, 「조선후기 왕릉 정자각의 지붕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석주, 2007, 「산릉의궤의 건축적의미에 대한 영건의궤와의 비교 고찰」『한국건축역사학회 2007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1 No. 4, December 2018, pp.24–43.*
Copyright©2018,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 Study on the Hwaban-chogak of the Neungwon-Jeongjagak

Jeon, Jong Woo

Daemok

Corresponding Author : jjw2529@gmail.com

Abstract

Thirty-five of Hwaban of Jeongjagak had been built in the last three hundred years, which means a Hwaban was made in almost every ten years. Jeongjagak is a building that requires a certain ornamentation having the identical Gongpo type, called E-ikgong, and maintains the same shape for a long time. While Hwaban is an element that faithfully serves the ornamental role, the field study found that Hwaban-chogak went through various changes over the years unlikely to Jeongjagak. This study enumerates and classifies the various types of Hwaban-chgak by outlining the similarities/differences of the various types of Hwavan-chogak, and by discovering what the craftsmen aimed to express through the Hwaban-chogaks.

As a result, Hwaban-chogak can be general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depending on the starting point of Chogak: 'Downward-Type' and 'Upward-type' and the study tried to find the origin of that. The first represents the stems of Hwaban crafts flowing from top to bottom, and the latter showing the opposite direction. Around 1740s Upward-type can be chronologically caragorised as; 'original- type' which contains lotus and 'modified- type' which eliminates lotus. It is inferred that the modified-type was caused by the employment system of the craftsmen. It is also recognized that the main·frame of Hwaban-chogak had been maintained despite the fact that Chogak became increasingly ornamental for the next a hundred years from the Hwaban-chogak drawings in Whaseong-seongyeog-uigwe, which was completed in 1796.

The study has a limitation that the focus of the research is only on the Hwaban of Jeongjagak and expected to look into Hwaban in the context of other construction elements such as Ikgong, Daegong and Anchogong for further studies.

Keywords Hwaban-chogak, Jeongjagak, Downward-Type, Upward-type, Lotus

Received 2018. 06. 29 ● **Revised** 2018. 08. 10 ● **Accepted** 2018. 11. 14